



현장 중심의 구민과 함께하는 강북구의회



강북구의회 소식

홈페이지: council.gangbuk.go.kr
강북구의회사무국: 02-901-4511~3



강북구의회,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30억 확정 의결

- 추경예산 신속 처리 위해 하루 일정으로 진행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4월 6일(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3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 대응과 구민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하여,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허광행)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승)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했다.

총 3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사업과 구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대응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취약 계층 지원 ▲풍수해 사전대비 및 피해시설 복구 ▲폭염, 한파, 제설대책 물품구매 등에 사용된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이용균 대표위원, 김영현 전직공무원, 장병식·나한웅 세무사, 정경영 회계사)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2019회계연도 강북구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강북구의 결산대상 총 세입은 7,529억 원, 총 세출은 6,325억 원이며, 잉여금은 1,204억 원이다. 이용균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강북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하반기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구민을 대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적법성과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성과적인 측면은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북구의회는 6월에 개최될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2019회계연도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강북구의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영상 인터넷 생방송 시행

※ 시청 방법: pc 또는 모바일에서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접속
(<http://council.gangbuk.go.kr>)

☞ ‘인터넷 방송’ 바로가기

•의회소식: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의회소식지

•참여마당: 의회에 바랍니다, 청원/진정, 방청·견학 신청 등

여러분이 직접 의정활동 시청과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